

“빚 갚기 어렵다”... 개인·법인 파산 급증

올 제주지법 접수 파산신청 590건... 전년보다 23% 늘어 최근 5년 중 최대... 코로나19 사태 따른 경기침체 영향 “코로나 장기화 뻔한데 채권자 보호장치도 필요” 목소리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한해 제주 지역에서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제주지방법원이 접수한 개인 파산 신청은 5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6건보다 23%(114건) 늘었다.
기업 등 법인이 낸 파산 신청도 급증해 전년 같은 기간 5건에서 올해 12건으로 140% 증가했다.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금 불능 상태'에 빠질 때 채무를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산을 숨기는 등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데도 채무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평소 과도한 소비 습관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을 망진한 경우 빚을 면제 받지 못한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파산자'의 부동산, 현금 소유 현황 등을 조사한다.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을 채권자 수에 맞게 배분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빚을 탕감 받는다.
올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파산 신청은 개인과 법인을 다 합쳐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1월부터 10월 사이) 423건, 2017년 408건, 2018년 463건, 2019년 481건, 올해 601건 등이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 상환을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늘었다. 올해 법원에 신청된 도내 개인 회생은 756건으로 전년 696건에 견줘 8.6%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빚을 못 갚는 사람과 기업이 속출하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내 모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값을 외상해준 개인·법인 등 채권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앞으로도 파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한데, 정부가 채권자 보호 대책 마련에 지금처럼 손을 놓는다면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면접관과 사제지간 이유 합격취소 부당” 합격→불합격 응시생 제주문제재단 상대 소송서 승소

응시자와 면접관이 단지 사제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관 사 이규훈)는 A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시한 일반직(5급) 직위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재단 측은 그해 8월말 합격 결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단 측은 A씨 면접에 참여한 한 시험위원이 A씨와 사제 관계에서 인사혁신처의 인사지침에 어긋났으며 합격 결정을 반복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의 인사지침은 '시험위원이 친족관계나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척·회피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의 채용절차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학부에서 수업을 들어 알고 있는 정도의 교수와 제자의 사이가 (제척·회피 대상인) '근무경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경채용 가이드북에서 예시로 든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교수와 제자 사이를 제척·회피 사유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들 때문에 (합격 취소 결정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성이 있어, 재단 측은 원고가 근로계약의 체결로 얻었을 임금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재단 측은 2019년 9월부터 A씨를 직원으로 발령할 때까지 매달 1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상민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당론 채택하라” 건설노조 어제 농성회견

민주소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23일 민주소총 건설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며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동시에 다발 점거 농성에 나섰다. 제주에선 이날 오전 9시에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한 뒤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지부는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대해기자



민주소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오전 9시에 제주도당 사무실 외벽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상민기자

‘사랑의 온도탑’ 내년 모금액 낮춰다

2021년 37억3000만원 목표
모금액 전년비 22% 감액
모금기간도 열흘가량 줄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진행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사랑의 온도탑)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목표 모금액 및 일정을 줄여 진행한다.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사랑의 온도탑 100℃ 달성을 목표로, 모금 목표액을 1% 채울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씩 오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일정은 전년보다 열흘 가량 줄었고 성금 모금 목표액도 지난해 목표액의 약 78.0% 수준으로 낮췄다.
캠페인 일정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된다. 전년(11월 20일~1월 31일(73일간)) 보다 열흘 가량 줄었다.
모금 목표액도 37억3000만원으로, 전년(47억8200만원)에 비해 약 21.9%(10억5200만원)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20 나눔캠페인에선 모금

목표액 47억8200만원을 넘어서는 48억원 가량이 모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9 나눔캠페인 역시 모금 목표액 47억7500만원을 초과 달성한 47억8100만원 가량이 모여 캠페인이 마무리된 바 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나눔캠페인 기간을 조정함에 따라 모금액도 일부 조정됐고, 연중 모금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도 제주시 노형오거리 노형타워 동측 야외광장에 설치된다. 강대해기자

내년 제주도의원 연봉 5882만원

월정수당 2.8% 인상 추진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이 2.8%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기존 3971만700원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8%)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971만700원에서 내년 연간 월정수당은 4082만9000원으로 111만2000원 오른다.
여기에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봉은 5882만9000원이 된다.
이와 별도로 복지포인트(기본 90만원)도 지급되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서울 코로나 확진자 1명 지난 17~19일 제주여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검체를 채취하고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A씨는 확진 이전인 지난 17~19일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14~17일 서울을 방문했고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66번 확진자 B씨와 지난 15~20일 제주를 방문한 경기지역 확진자 C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이들의 동선에 대한 접촉자 파악 및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그랜드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마팅 혜택입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기쁨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쌍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제주도정소식

제주특별자치도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도내 모든 농·임·어·어가)
조사기간 = 인터넷조사('20.11.23.-12.11.) / 방문면접조사('20.12.1.-12.18)
* 전국 규모의 통계 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 부탁드립니다!

2020 온오프라인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2020. 11.23.(월)~11.27.(금)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내용	회원가입 및 구직 신청	구직 신청
장소	홈페이지	제주상공회의소
기간	11.16.(월)~11.27.(금)	11.23.(월)~11.27.(금)
신청방법	상시접수	계층별 5부제 실시
참여계층	도민 누구나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5	
홈페이지	www.jeudreamjob.net	

* 구직신청서 접수일정

구분	11.23(월)	11.24(화)	11.25(수)	11.26(목)	11.27(금)	비고
오프라인	중장년 (35세-55세)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 (55세 이상)	청년/특성화고 (19세-35세)	제주상공회의소 5층 10시 - 17시
온라인	11.16(월)부터 11.27(금)까지 누구나 이용가능					